

제주 최초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윤 진주리 기자 | 승인 2025.03.1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이달 말 준공



전병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마트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지역 최초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 본격화된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 시설을 공공기관이 조성하고, 이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20년 동안 장기 임대해 영농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1만1000㎡ 규모 부지에 스마트팜 2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해 있으며, 이달 말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팜은 AI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과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최적의 재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임대료는 개소당 연간 316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병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지난 18일 스마트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병칠 본부장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제주 농업의 스마트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주리 기자